

<전 매체> 2022년 8월 3일(수) 14: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문의 : 투자회수관리과 권영학 과장(044-204-7720), 전은별 사무관(7724)

이영 장관, 벤처투자업계와 소통에 나서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업계 간담회(8.3) 개최 -

-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벤처·창업 생태계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벤처투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벤처투자업계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대해 정부도 세계적인(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현, 민간 모자금(펀드) 조성 등 지원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영 장관은 8월 3일(수),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2. 8.3(수) 14:00 ~ 15:30 /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지하 1층)
- [참석대상] (정부) 중기부 장관, 창업진흥정책관, 투자회수관리과장, 벤처투자과장 (협단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벤처투자업계(대표)) 유티씨인베스트먼트(김세연), 티에스인베스트먼트(김웅), 케이비인베스트먼트(김종필), 다올인베스트먼트(김창규), 인라이트벤처스(박문수), 캡스톤파트너스(송은강),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송인애)
- [내용] 벤처투자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벤처·창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상반기 벤처투자액과 자금(펀드)결성액이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는 그간 벤처·창업 생태계가 일군 고무적인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최근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 마련을 건의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최근 세계적인(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모자금(펀드) 등 신규 투자 자금 공급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이 벤처투자조합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탁을 하더라도 조합 운용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탁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또한, 고금리, 경제침체 상황 등으로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영세한 수준인 ‘중소벤처전용 인수합병(M&A)자금(펀드)’들이 대형화될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들의 경우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금이 풍부한 수도권으로의 이전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지역 확장(스케일업) 자금(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영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민간 모자금(펀드) 조성 기반 구축 등 벤처투자업계의 투자활동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행사 사진은 15시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은별 사무관(☎ 044-204-77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 8. 3(수) 14:00~15:30 /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지하 1층)
- 참석자 : 총 12명
 - 우리부(4명) : 장관, 창업진흥정책관, 투자회수관리과장, 벤처투자과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1명) : 지성배 협회장
 - 벤처투자업계(7명) : 김세연 대표(유티씨인베스트먼트), 김웅 대표(티에스인베스트먼트), 김중필 대표(케이비인베스트먼트), 김창규 대표(다올인베스트먼트), 박문수 대표(인라이트벤처스), 송은강 대표(캡스톤파트너스), 송인애 대표(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 주요내용 : 최근 고금리 등 벤처투자시장의 위축 우려 상황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창업·벤처 정책에 반영**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2	2'	■ 참석자 소개	사회자 : 투자회수관리과장
14:02 ~ 14:07	5'	■ 모두발언	장관
14:07 ~ 15:27	80'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	참석자
15:27 ~ 15:30	3'	■ 마무리발언	장관